

David Emanuel 박사, 세션 1, 출애굽기 시편 136편

© 2024 데이비드 에마누엘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서론, 시편 136편, 후렴 전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avid Emanuel 박사입니다. 나는 이곳 Nyack College와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배경은 원래 컴퓨터 과학이었지만, 얼마 후 그것을 포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11년 동안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약성서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일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나오는 출애굽 모티브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어 시를 많이 썼을 뿐 아니라 고대 근동과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음 몇 개의 비디오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출애굽 모티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 모티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제 주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시편에 나타나는 출애굽 모티브를 연구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 모티브 자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성경을 통독하면서 나는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의 모티브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전통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티브에 대해 더 많이 읽을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에 그 모티브가 반영되는 것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전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서문을 쓰면서 여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열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출애굽 모티프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 중 하나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내 영어 내성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썼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지도교수에게 소개 초안을 건네주었고 그는 그것을 보고 한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그가 한 수정은 바로 이것이었다. 출애굽 모티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이며,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티브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시편에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본 다음 모티브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이 특정 강의를 위해 선택한 다섯 편의 시편인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출애굽기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크로스 장르, 즉 특정 장르가 없다는 점입니다.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이 원래 정의한 장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애도, 찬양의 노래, 감사의 찬송 등 모두 시편 수업의 다른 동영상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엑소더스 모티브가 실제로 적용되는 단일 장르는 없었지만, 이는 우리가 크로스 장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다양한 장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편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편 66, 77, 95, 114편과 같이 출애굽기에 대한 작은 언급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막 시대를 반영하고 또한 정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외에 다른 시편에도 출애굽 전통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는 아마도 시편 14편이 적어도 한두 편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출애굽 모티브를 다루거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내용은 여기 이 시편에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7편, 78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시편은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우리는 각 시편에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이 시리즈에 일종의 구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시편에 대해 제공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각 시편에 대해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개요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종의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떤 단계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실제로 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왜 기록되었는지, 시편 기자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그가 출애굽 모티브의 특정 요소를 그의 특별한 구성에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의 구조, 루브릭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모티프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할지라도 무시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에는 훨씬 더 독창적인 언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이 출애굽기 모티브,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측면들 중 일부를 비교할 것입니다.

주목할만한 누락 문제도 해결될 예정입니다. 핵심 요소가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출애굽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민수기에는 등장하는 출애굽기 모티브의 핵심 요소들이 무시되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중 일부를 제기하고, 일부를 가져오고, 개별 시편을 다룰 때 그러한 사항 중 일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은 시편의 시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가 언급한 시편, 특히 시편 105편, 106편, 78편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줄거리와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판을 받아온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들은 다소 덜 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실제 시편 자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히브리어 시학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나 일련의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매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적 특징, 특히 강조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편에 담긴 특정한 시학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사용, 해석, 재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거나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은 확실히 작가의 출처로 보이는 것이 그가 자신의 작품에 배치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는 시편 자체와 출처 사이의 관계 중 일부를 탐구하여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 중 일부를 살펴보면서 그 출처가 실제로 오경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다른 본문, 오래된 전통 또는 다른 시편이나 다른 문학 작품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그것을 엮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적에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편 기자의 해석이나 재사용에 대한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인용할 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 NASB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텍스트를 더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시학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저기서 단어의 특정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정 텍스트를 조정할 예정이며, 내가 언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 요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 시편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일은 출애굽을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출애굽기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클랜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창세기의 끝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과 그의 대가족이 등장하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총 70명의 영혼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 닥쳐온 기근, 곧 극심한 흉년을 피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참여시켰고 그들은 단지 클랜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분명히 번성하여 민족이 되고, 그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의 수가 많아지므로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 우리는 이것이 일부 시편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티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노예 제도,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 장자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10가지 재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시편 전반에 걸쳐 재앙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모티프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적인 바다 횡단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빼앗아 광야가 시작될 때나 바다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도의 반역이 있는 것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반역이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그것은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야기할 개념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식량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전통인 만나와 빵이 제공되며, 메추라기를 곁들인 고기도 제공됩니다. 그 규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원에서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죄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소그룹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도 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필요를 그들에게 내려놓아야 하는 끊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 토라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명기가 레위기 2장과 마찬가지로 토라에 대한 많은 설명을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책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를 넘어서고 있지만 율법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토라 자체의 패턴을 따르면 트랜스요르단 지역의 초기 정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훈의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 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아주 빨리 그린다면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그리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르단이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꽤 많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그런 종류의 지역인 신명기 끝 부분에서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땅은 본래 아모리 족속에게 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모리 족속과 옥과 시혼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영토를 건너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그것을 정복했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약속된 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넓은 지역을 격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모티브의 구성 부분입니다.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다른 성경 전통에 엮어졌는지, 그리고 히브리 시의 구조에도 어떻게 엮어졌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6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136편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더 짧은 시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개와 첫 번째 비디오의 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개도 포함하려면 더 짧은 시편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짧은 것 중 하나이고 실제 책의 마지막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곡은 첫 번째 곡인 시편 78편입니다.

따라서 시편 자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례 찬송, 즉 후렴 찬송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 행 뒤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각 절이 있으며, 그 종류의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키 레오람 하즈도(ki leolam hazdo)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적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성 찬송입니다.

아마도 이 찬송을 배경으로 한 후렴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리더가 특정 구절을 외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ki leolam hazdo”라고 말하며 매년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응답은 물음표와 함께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 라인인 ki leolam hazdo에 대해 확실히 학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시편의

원본인지, 아니면 전례적 구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작품에 삽입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콤란의 시편 두루마리에 시편 145편의 사본이 있다고 가정하는 데 비교적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각 절 뒤에 항상 나타나는 후음 행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소라 본문에 있는 사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서 특정 구성을 보고 그것을 예배적 맥락으로 더 옮기기를 원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청중이나 참여자가 참여하기 위해 낭독할 수 있는 대사를 추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것이 비유기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편 135편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다루는 구절은 대략 10장부터 22장까지 13절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병치가 주목할 만하므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135편이 있고 136편 이후에도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시편들 사이에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편의 편곡자나 시편의 작곡가, 편집자와 편집자의 편집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고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께서 전사로 많이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고 그것이 주요 추진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기의 어떤 요소들을 붙잡고 채택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다양한 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많은 포인트를 얻거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전사, 싸우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다른 왕들과 싸우는 분이라는 생각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자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시편이 시작하는 찬양과 예배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비록 출애굽기 시편이 찬양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중을 노래의 영, 찬양과 예배의 영으로 이끄는 도입부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에서 9까지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창조의 개념은 단순히 창조의 초기 행위만이 아니라 세상을 유지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측면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출과 트랜스요르단 왕들의 패배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초점을 맞춘 두 가지 주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약한 찬양 요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섹션을 살펴보거나 이 섹션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모두 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도록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의 특정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둘라(Hodula)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 문구, 호둘라 아도나이(Hodula Adonai)는 세 구절의 시작 부분에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이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것이 하나의 특정 섹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소개된 헤세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된 히브리어 단어는 키 레오람 하스도(ki leolam hasdo)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hesed)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 놓겠습니다.

(H eded), 히브리어로 그와 비슷한 것. 제가 글을 써보면 영어도 좀 그럴 것 같네요. 한 번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어려운 단어인데 은혜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언약의 사랑과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은혜가 아마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문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문구나 단어 자체만으로는 이 단어를 충분히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ki leolam hasdo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일종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한 방식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자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신 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엘로헤이 엘로힘(Elohei Elohim)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수업이 아닌 건 알지만, 이 단어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엘로힘이 될 것이고,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발음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신들을 묘사하는데도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에 대한 관념이 있었지만, 다른 신들, 천사형 인물,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관념도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 이 다른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이름, 즉 테트라그램마톤(Yud-Heh-Vav-Heh)을 볼 때에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신 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랬는지, 그들이 신임을 인식했는지, 천사라고 생각했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성경적 암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아닌 다른 신을 묘사하는 엘로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던 신명기 10장 17절과 시편 기자 사이에 잠재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문헌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할 것입니다. 나는 아주 드물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나의 영어 예비력입니다. 성경에는 그 자체로 존재한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책이 이런 종류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경전의 책과 부분이 완전히 별개로 쓰여진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하는 것처럼 읽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에는 항상, 즉 절대적으로 성경의 모든 책을 의미하며, 성경의 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매우 복잡한 연결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문구를 빌려서 그 문구를 특정 텍스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출애굽기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나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몰입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구절과 단어와 문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들의 텍스트에 통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 신명기의 한 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 중의 신이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특별한 표현은 이 두 장소에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이는 저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끌어들이는 경전 차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절에서 9절까지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이로움, 그의 위대한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의 개념이나 언어를 소개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루트 펠레가 있습니다.

그냥 루트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펠레라는 단어는 아마 영어로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펠레라는 말은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묘사하는 개념이다. 고대인들은 개인의 직업, 일, 임무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무를 벨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에 이르면 niflaot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것, 기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niflaot라는 단어와 gedolot라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펠레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를 볼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의 개념을 다룰 때 고대인들은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 가지 계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나무를 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대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 등 자연이 돌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나 상처가 나도 치유됩니다. 그것은 내려오고 이것은 우리가 치유되는 자연적인 과정인 대자연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찾아오는 멀리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두 개의 층만 있었습니다.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은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가 치유된다면 대자연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실제로 한 번 내 고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성경 세계에는 자연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iflahot, gedolot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것이 경이로움으로 번역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호로 번역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며, 이것은 성경적 기적의 언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펠레(pele)라는 단어와 니플라호트(niflahot)라는 단어가 종종 출애굽기와 출애굽 기간 동안 일어난 기적에 할당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기적을 뜻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배너를 의미하는 단어인 ne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용어로 장엄한 것과 같은 어떤 종류의 단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약간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특별한 시편의 작품에서 채택된 패턴이 그가 먼저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다음 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으니,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게만 이 곳을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서 이러한 경이로움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찾을 수 없는 특정한 패턴에 대한 이 일반적인 내용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이 있으며, 제가 여기에 있는 진술 중 하나에 물음표를 붙일 때마다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잠재적인 지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 솜씨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여기 기술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단어에는 어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해로 번역되는 tevunah binah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성경 번역에 잘 반영되지 않는 유형의 것입니다.

번역가가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개념을 도입한 이해의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히브리어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태양과 달에 대해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시편 기자가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달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더 큰 빛이 창조되고 더 작은 빛이 창조된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창세기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해와 달은 그 특별한 시기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을 치셨다는 언급입니다. 이는 우리가 합창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시편 기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당시 이집트 사람이었고 당신의 맏아들이 치명타를 당했다면, 당신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밑줄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특별한 시편에는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집트인들을 쳤고 바다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다를 가르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L'xor bexarim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어느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것을 묘사하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이상한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단지 그것들이 마음에 떠올라서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본문의 영향을 받아 그것들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쪼개진 조각 사이에 있는 횃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매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본문에 들어가서 그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예언하는 본문이라고 믿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인도할 것을 예언합니다. 더 읽어보면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그 당시에 실제로 언급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연성 있는 이 텍스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개연성 있는 환상을 말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도박을 해야 한다면 분명히 나는 도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박을 해야 한다면 그가 이 시편을 쓰면서 이 특별한 본문을 썼을 때 창세기의 이 본문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염병을 대략적으로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에게서 첫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선택되고 다른 아이는 언급되지만 축약되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멸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를 치고 바로를 공격하시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특별한 왕의 공격과 멸망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이 특별한 시편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의 다음 부분을 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데려가시며 사막 사건을 열버무립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사막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광야시대의 40년 광야생활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옥과 시혼이라는 두 왕을 멸망시키신 트랜스요르단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언급된 것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짧은 발췌문에서 이것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왕으로서 싸우시며, 다른 왕들과 비교될 정도로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치고, 옥을 치고, 시혼을 쳤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사였습니다. 그는 사막 기간 동안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트랜스요르단 정복을 중단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나요? 최초의 땅 정복과 마찬가지로 현대 학문에서 이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이유는 시편 기자가 모세의 첫 다섯 권의 책인 토라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끝, 신명기의 시작은 트랜스요르단 정복에만 그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편 기자 당시 토라가 어떻게든 모음집이었다는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좀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었고, 책 모음집처럼 여겨졌죠. 그런 다음 토지 분배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패턴은 시적인 패턴입니다.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테라스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냥 표시해 두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시 강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B 요소가 강조를 위해 반복되는 A, B, B, C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보고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다시 반복되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가 그들의 땅을 준 것은 이것의 A 부분이 될 것입니다. 유산은 두 번 반복되는 B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그분의 종 이스라엘 c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친절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 사이에 삽입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단식 패턴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후렴구가 시를 분할하고 잘 읽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시편에 추가된 것이라고 가정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요약하게 됩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시기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낮은 신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이것이 그가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구출했을 때의 출애굽에 대한 언급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실제로 587년의 포로 생활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시편 기자들이 겪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들 중 어느 것이 확실하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아마도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모호한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호둘레(hodule)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이 문구가 세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의 포함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시작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병치, 나는 전에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시편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일부 내용이 포함된 시편 77편은 시편 78편 옆에 나타납니다. 다시 출애굽기가 지배적인 시편 105편은 시편 106편 바로 옆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시편 135편이 있는데, 이 시편은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136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편곡자가 사물을 그룹화하려는 일종의 인지적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 문헌의 다른 곳에서도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연합의 원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제 논문과 다른 포럼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지금 당장 이에 대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자료의 내용은 시편이 서로 나란히 배치되는 특정 위치를 지시합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무작위로 함께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나요? 두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는 그것이 무작위적이고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작위로 조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편집 활동이 있고 시편의 편집자들이 각 시편, 각 시편의 내용, 그 안의 키워드, 내용을 하나로 묶을 때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는 여기와 다른 곳에서도 분명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에 대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시편인 시편 136편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의 개념을 취하여 하나님을 전사 또는 전사 왕으로 묘사하거나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의적인 것, 설정, 매우 특별한 설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유월절, 그렇다고 맹세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월절이었겠지만 더 큰 의식의 일부로 기능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특별한 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출애굽기에 관한 한 직접적인 암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예, 그는 아마도 이 특정 장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가 이 특정 장소를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우리에게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대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장자를 먼저 언급한 다음 모든 재앙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의 작은 예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비록 시편 기자가 출애굽기를 정해진 일련의 사건으로 여기더라도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시를 창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나 개념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연대순은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편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친절의 자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 레오람 하도(ki leolam hasdo)라는 개념을 반복하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친절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의 사랑이 이스라엘이나 그의 백성에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성한 첫 번째 시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편 78편입니다. 이것은 Dr. David Emanuel이 출애굽 시편에 대해 가르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서론, 시편 136편 후렴 전례입니다.